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보도	2026.10.28.(수) 07:30	배포	2026.10.27.(화)
담당부서	은행검사1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김남태 (02-3145-7050)
		담당자	부국장 임연하 (02-3145-7060)
	은행검사2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이지원 (02-3145-7050)
		담당자	팀 장 김혜선 (02-3145-7060)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포용금융팀	책임자	국 장 정은정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이종진 (02-3145-8022)
			팀 장 류지성 (02-3145-8040)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금융총괄팀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담당자	부국장 손인호 (02-3145-712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1 간담회 개요

- '26.10.28.(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2026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 '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이하 '지주·은행')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지주·은행 개별 이사회와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주·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

- 금융권의 당면 현안에 대해 이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음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6.10.28.(수), 07:30 ~ 09:00 (조찬 간담회)
- ☑ 장 소 : 금융감독원
- ☑ 참석자 : (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검사1·2국장
(은행지주) KB 조화준 의장, 신한 박수근 의장, 하나 박동문 의장,
우리 윤인섭 의장, NH 김병화 의장, BNK 오명숙 의장,
iM 조강래 의장, JB 이성엽 사외이사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AI 기업 수익성 우려 등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조원) 추이: ('24) 23.8 ('25) 26.7 [上 15.4] ('26.上) 17.6

- 다만 예상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책임있는 판단과 대응에 따라 위기의 파급효과와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사회가 단순한 경영성과 감독에 그치지 않고 주요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함(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3.9월)

- 금번 간담회가 우리 금융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①금융권 IT 보안 강화, ②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③사회적 책임 강화, ④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 1. 금융권 IT 보안 강화 >

- 최근 금융회사 침해사고는 공격대상이 비핵심시설*로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AI 활용 가능성 등으로 IT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영업지원 시스템 등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부수시스템

- 금융회사 스스로 IT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자율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IT 보안에 대해 규제 준수 위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IT 보안 관련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행태를 경계하며
- IT 보안은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금융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업무라는 인식 하에 IT 보안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음

< 2.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

- 현재 마련 중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에 걸맞는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사외이사가 금융산업, 경영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실천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 금융연수원의 사외이사 연수프로그램 활용, 지주회사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 또한, 사업다각화, 경영진 보수 및 성과평가(KPI) 등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서 형식적 의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료요청,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
 - * '25년 8대 은행지주 의결안건 총 993건 중 수정가결 9건, 보류 1건 외 전부 원안가결
 - 진행 중인 자회사 CEO 승계절차에서도 후보군 선정, 검증·평가, 기록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음

< 3. 사회적 책임 강화 >

- 은행권의 사회공헌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상회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 중
 - 다만,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 지원,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 * [소셜워싱 사례] 금고 계약 입찰을 위한 지자체 행사 협찬금, 콜센터 보이스포싱 대응 직원 인건비,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비용 등
 -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각 금융그룹의 경영전략, 강점을 살린 중장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음
 - 아울러,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점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효율성과 함께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고려해 줄 것을 밝혔음

<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

-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 중인데, 국내와의 법규·거래관행이 상이한 현지 특화 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리스크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24년) 7건(1.5억원) → ('25년) 12건(1,249억원) → ('26년~7월) 6건(809억원)

- 리스크 인식부터 측정, 대응의 단계별 원칙*을 재정립하고, 본점의 정책·관리수준이 해외점포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면서,

* 거래구조상 취약점을 '리스크'로 정의하여 측정·관리하고, 계약 관련 본질적 업무 위탁 방지 등

** 금융사고 사례 분석, 본점의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점포 검사 강화, 보고체계 개선 등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과 성과가 인사·평가체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등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중심의 시스템과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음

* 준법리스크부서에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인사정책에 내부통제 역량 반영 등

- 아울러,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음

* 내부통제 혁신방안('22.11.),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25.7 시행), 책무구조도 도입('25.1.) 등

3 참석자 발언 요지

- 이사회 의장들은 이번 간담회가 금융권 주요 현안과 감독방향 등에 대한 통찰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음
- 단순한 의사결정기구를 넘어 경영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이사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뜻을 함께 하였음
- 이사회와 감독당국간 간담회가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는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 대해 뜻깊게 평가하며,
-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별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